

- 주요 뉴스: 유로존 인플레이 서프라이즈로 ECB 정책금리 4%까지 인상 가능성
 -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, “금융시장 반응에 의존하는 정책은 위험이자 실수”
 - 중국, 2/26~28일 2중전화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개편안 통과
 - '01년 이후 처음으로 현금보유 수익률이 60/40 포트폴리오를 능가
- 국제금융시장: 통화정책 긴축 우려 지속 등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된 영향
 주가 하락[-0.3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상승[+1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소매 업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우려 지속
 유로 Stoxx600지수는 ECB의 금리인상 장기화 전망으로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등이 영향
 유로화는 0.3% 하락, 엔화는 2개월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막판 매수유입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, 경제지표 둔화와 인플레이 우려로 약보합
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으로 '11년 7월 이후 최고치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21.86원, +5.2원) 0.07% 하락, 한국 CDS -1bp

		2/28일	2/27일	전일대비			2/28일	2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970.15	3,982.2	-0.3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92%	3.91%	1bp
	유럽	461.11	462.58	-0.32%		독일	2.65%	2.58%	7bp
	중국	3279.605	3,258.0	0.66%		영국	3.83%	3.81%	2bp
	일본	27445.56	27,424	0.08%	CDS 5y	한국	44bp	45bp	-1bp
	한국	2412.85	2,402.6	0.42%		중국	71bp	71bp	0bp
	달러지수	104.869	104.66	0.19%	위험 지표	EMBI+	387	384	+3bp
환율	유로화	1.0576	1.0609	-0.31%		VIX	20.70	20.95	-1.19%
	엔화	136.17	136.19	0.01%		WTI유	77.05	75.68	+1.81%
	위안화	6.9356	6.9441	0.12%	원자재	구리	409.8	400.7	2.21%
	원화	1322.6	1,323.0	0.03%		금	1,826.9	1,817.1	0.0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유로존 인플레이 서프라이즈로 ECB 정책금리 4%까지 인상될 가능성

- 2월 프랑스 소비자물가(HICP)는 전년동월비 7.2%(전월 및 예상 7.0%), 스페인은 6.1%(전월 5.9%, 예상 5.7%)를 기록하며 급등. 유로존 각 2위, 4위 경제국들의 예상밖 인플레이 상승은 3월 ECB에서 0.5%p 금리인상에 힘을 실어줄 전망
-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필립 레인,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높고 금변 사이클에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는 느릴 것이라고 언급
- 선물시장에서는 연말 ECB 정책금리(예금금리 기준) 4%를 반영하고 있으며, 높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증가
- 스페인의 CPI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물가 하락 경로가 불안정하고 경직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, 기저효과로 인해 향후 수개월간 하락이 예상되지만, 연말 여전히 5%를 상회할 가능성(Bloomberg)
- ①프랑스, 스페인의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, ②1월 유로존 은행대출 증가 등을 근거로 5월 ECB의 0.5%p 인상 및 최종 정책금리 3.75%를 전망하며, 6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(Goldman Sachs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 하락,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

- 소비자신뢰지수는 102.9로 전월 106.0(예상 108)에서 하락했으며, 주로 저소득층 가구에서 저하. 물가가 높고 차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할 가능성이 높지만 강력한 일자리 증가로 지출을 지속 중(High Frequency Economics)
- S&P CoreLogic 케이스실러 12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5.8% 상승해 11월(7.6%)보다 상승폭이 둔화. 연간으로 '21년 18.9%에서 '22년 5.8% 기록

■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, “금융시장 반응에 의존하는 정책은 위험이자 실수”

- 경제지표가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즉각적 반응에 기대는 것은 유혹적이지만, 중앙은행은 실물경제에서 얻은 단서로 판단해야한다고 언급

■ 미국 지역연은 2곳, 지난 1월 할인율 금리 동결을 주장

- 애틀란타와 댈러스 연은이 1월 중순 상업은행에 부과하는 긴급대출 금리 동결을 주장한 반면, 5개 연은은 0.5%p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회의 의사록 공개
- 2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, 할인율은 정책금리에 연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연준내 이견이 크다는 점에 주목

■ 중국, 2/26~28일 2중전회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개편안 통과

- 회의에서 '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방안' 초안을 통과시켰으며, 다음주 양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. 개혁은 "상대적으로 강화된" 방식으로 주요 산업과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언급. 내수 확대 및 산업 공급망 제고, 경영 환경의 시장화 등을 통해 경제를 안정적 성장궤도로 돌려놓겠다고도 강조

■ 중국 자산관리협회, 20조위안(2.9조달러)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

- 느슨한 규제를 틈타 늘어난 '가짜 펀드'를 근절하고 헷지 펀드의 내부자 거래 비리 등을 단속하기 위해 사모 및 헷지펀드들의 납입 자본금을 현재보다 5배 많은 1천만 위안 이상으로 상향
- 법정대리인과 고위경영자는 최소 자본금의 20%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3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배주주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요건도 강화

■ '01년 이후 처음으로 현금보유 수익률이 60/40 포트폴리오를 능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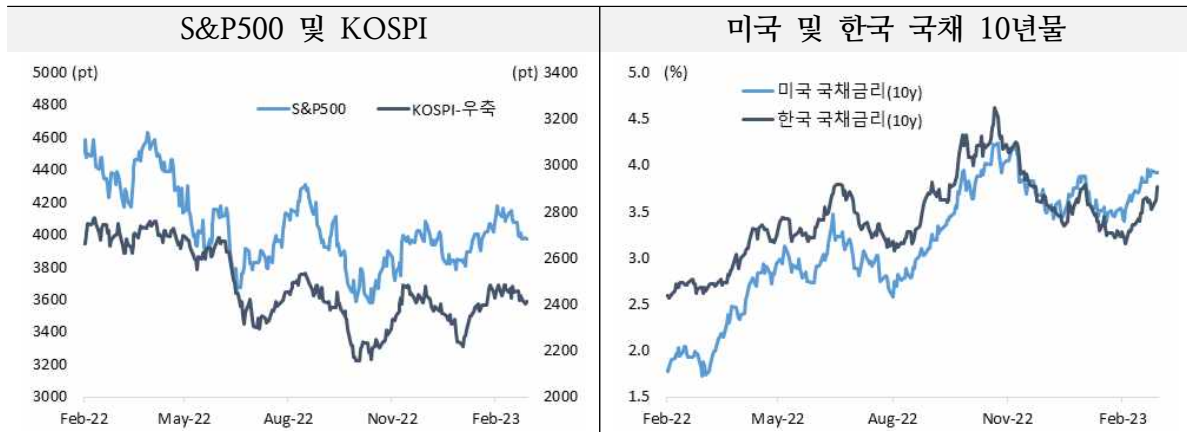
- 20여년만에 처음으로 현금(무위험 단기자산인 6개월 만기 미국채) 수익률이 5.14%를 기록하며 전통적 미국 주식/채권(60대40 비율로 구성된) 포트폴리오 수익률 5.07%를 상회. 이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기적 수요를 이끌었던 시대에서 탈피를 의미하며, 투자자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할 동기를 감소시킴(risk-off)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1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2월 차이신 제조업 PMI, 미국 2월 자동차판매, ISM 제조업 지수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50, E-mail kimyk@kcif.or.kr